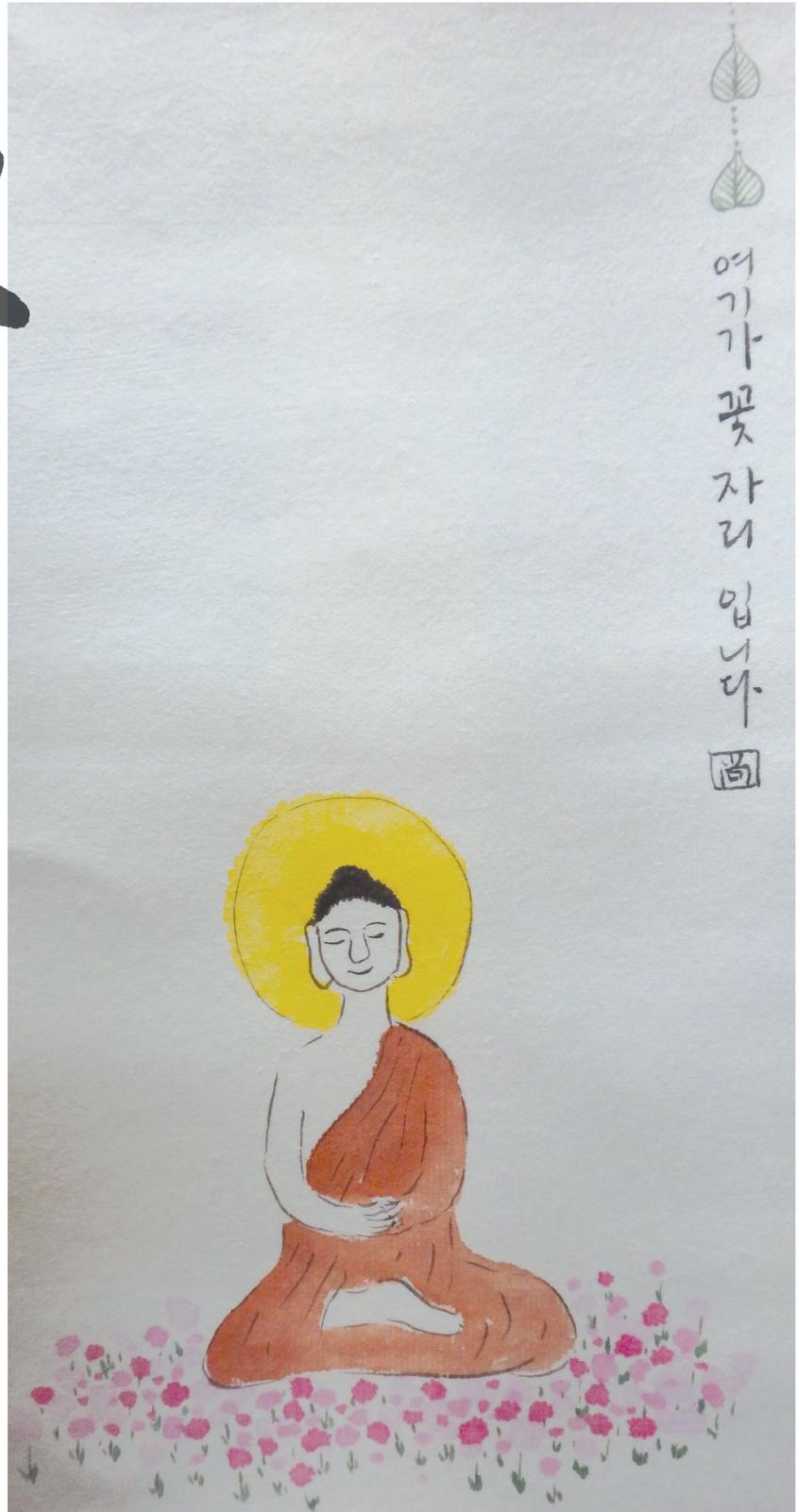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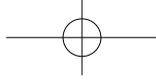
불기 2561년  
통권 13호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www.seonsujoa.org





●●● 새해 새아침



## 대분심으로 가행정진하여 모두 함께 부처를 이루리이다!!

일심귀의하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신 격려와 후원 덕분에  
수좌복지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고,  
간화선 발전의 토대를 일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부처님의 밝은 지혜로 무루 복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이사 義 正 합장



## 글 순서

#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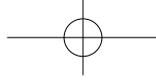
불기 2561년  
통권 13호

- 2     **새해 새아침**  
대분심으로 가행정진하여 모두 함께 부처를 이루리이다!!
- 4     **지혜의 공간⑦**  
대혜 보각 선사 『중문무고 (33화~37화)』 / 연관 스님
- 8     **일상 속 수행**  
겨울꽃밭 / 범념 스님
- 10    **쉬고 또 쉬고**  
마음, 항상 지금 여기! / 희상 스님
- 11    **사찰숲 이야기**  
불교의 발상지, 숲 / 박희준
- 16    **수행자의 서가**  
원한을 갚는 도의 깨침 『이입사행론』 / 여현 스님
- 18    **역사 속 재가수행자③**  
부처님 재세 시 마티카의 어머니 / 정운 스님
- 20    **수행의 현장**  
미국 명상센터 답사기1 / 박희승, 홍광표
- 24    **불자참선수행기**  
내 안의 부처님 만나기 / 김복숙
- 26    **건강을 위한 지혜**  
낙상 사고 대처법
- 28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추진 경과보고**
- 30    **대중알림판**
- 31    **정기후원신청서**
- 32    **후원 현황**  
후원자 소개
- 35    **조주의 차 한잔**  
보이차의 유통 기한 / 김동수



표지화 - 희상스님

• 발행처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 발행인 대표이사 의정스님 • 발행일 2017년 2월 11일(13호) • 전화 02)922-9967  
• 전송 02)923-9967 • http://www.seonsujoa.org • E-mail seonsujoa@daum.net • 편집·제작 : 능인



# 대혜 보각 선사 『종문무고』 (33화~37화)

참학 비구 도겸 역음

연관 스님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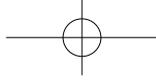
이 책은 대혜스님의 제자인 도겸스님이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대혜스님이 좌선하는 여가에 틈틈이 대중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모은 것이다. 흔히 “임제종 종풍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할 정도로 118여 이야기 가운데 임제종 종장의 접물이생 인연과, 오도의 정수와, 종횡무진한 기변을 보였다. 『종문무고』는 ‘종문의 무기 창고’ 짝 되는 말인가? 혹은 ‘무고’는 박학다식하며 다재다능한 사람을 칭송하는 말이기도 하다. ‘종문의 무기고’를 열어보기로 한다.

**【제33화】** 늑담 심(渤潭 深) 화상은 하동(河東) 사람으로, 진정의 제자다. ‘오(悟) 시자’라는 이가 있었는데, 우연히 지객료에서 화로의 불 붙은 나무토막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홀연히 깨닫고는 바로 방장에 올라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니, 심(深) 화상이 꾸짖고 쫓아내 버렸다. 이로 인해 실망하여 연수당(延壽堂:병든 스님이 요양하는 곳) 변소에 끈으로 목을 매 죽더니, 밤마다 장경각, 연수당, 변소 세 곳에 출몰하여 신을 옮겨놓고 물병을 건네주곤 하니 온 대중이 몹시 귀찮아하였다.

그때 담당 화상이 절(浙) 지방을 행각하고 돌아와 수좌가 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듣고 밤중에 일부러 연수당 변소에 들어가 불일을 보는데, 벽에 걸린 가는 등불이 갑자기 꺼지더니 막 옷을 벗으려는데 오 시자가 물병을 가져왔다. 담당이 “필요 없다. 우선 내가 옷을 벗을 때까지 기다려라!” 했으나, 옷을 벗자 금방 또 물병을 가져가버렸다.

또, 당시 오 시자가 목 매 죽은 곳에서 대변을 보니, 잠시 후에 또 주자(籌子:대변을 닦는 도구. 나무나 대나무나 갈대로 만든다)를 가져왔다. 막 나가려는 오시자에게 “물병을 가져가라!” 하고 말했다. 오가 물병을 집으려 하자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딱딱한 것 같기도 하였다.

“네가 오 시자냐? 네가 당시에 지객료에서 불 붙은 나무토막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느냐? 선을 참구하고 도를 배우는 것은 본명 원신(本命元辰:본분, 본래면목)의 행방을 알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너는 장경각에서 단(端) 수좌의 신발을 옮겨놓았으니 어찌 네가 당시에 깨달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 지객료에서 베개를 옮겨놓았



으니 어찌 네가 당시에 깨달은 곳이 아니겠느냐?  
밤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물병을 건네주니 어찌  
네가 당시에 깨달은 곳이 아니겠느냐? 어찌 낙처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대중을 괴롭히고만 있는가?

내가 내일 대중에게 권하여 경을 읽게 하고 돈  
을 모아 음식을 장만하여 너를 천도할 것이니,  
너는 따로 벗어날 길을 찾아보고 여기에 머물지  
마라!”

하고는 탁 밀쳐버리니, 마치 기왓장과 탐이 무너  
지듯이 와르르하는 소리가 났다.

이로부터 자취가 끊어졌으나 담당은 한쪽 팔이  
얼음과 같이 싸늘하더니, 반달이나 지나서 비로  
소 회복되었다. 대개 비인(非人:사람과 상대. 天·  
龍·八部·惡鬼 등)은 음기가 붙어서 오니, 찬 기  
운이 사람을 침해하는 것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제34화】** 허지가(許知可)는 곤릉(昆陵) 사람이다.  
일찍이 향천(鄉薦:진사에 응시하기 위해 받던 州  
縣의 추천)을 얻어 진사시를 치렀으나 낙방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배가 오강(吳江)의 평망(平望)  
에 묵어가게 되었는데, 꿈에 흰 옷을 입은 자가 나  
타나 말하였다.

“너는 남모르게 하는 덕행을 쌓지 않았으므로  
급제하지 못한다.”

“저의 집은 가난하여 남을 도울 겨를이 없었습  
니다.”

“어찌하여 의술을 배우지 않는가? 내가 너에게  
지혜를 도와주마.”

지가가 꿈에서 깨어 고향에 돌아가서는 그의 말을

믿고 과거에 응시하여 향평(鄉評:鄉舉를 뽑기 위해  
당사자들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일)에 합격하고 춘  
관(春官:禮部)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배가 평망에 정박하여 기다리노라니, 전에 꿈에서  
본 흰 옷을 입은 사람과 다시 만났다. 그가 이런 시  
를 지어주었다.

의술을 배우는 공덕이 커서

진루(陳樓) 사이에 끼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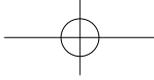
전상(殿上)에서 이름을 열거할 때

여섯을 불렀으나 다섯이 된다.

施醫功大 陳樓間阻  
殿上呼臚 喚六作五

그때 지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나중에 급제하여 이름을 부르는데, 본래  
는 여섯 번째였으나 시관이 앞 사람의 이름을 부  
르지 않아 마침내 다섯 번째에 올라 진(陳)씨와 루  
(樓)씨 사이에 끼인 것이 아닌가! 그제야 지가는  
비로소 지난 날의 예언을 깨달았던 것이다.

**【제35화】** 불광무애(佛光無礙) 선사가 소주 영안사  
(永安寺)에서 조식을 받들어 대상국사의 혜림선원  
에 머물 때의 일이다. 혜공(慧恭) 황후가, 선사가  
그를 알현하고 나서는 궁중에 올라 허공을 따라  
돌아가는 것을 주렴 밖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로부터는 태관(太官)이 바치는 궁중 음식을 그  
에게 공양하고, 다시 선사가 먹다 남은 음식은 도로  
궁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지금초(地錦草)로  
법의를 만들고 손수 선패(禪牌)를 수놓아 바치며



불법을 받드는 정성을 표현하였고, 겨울에는 붉은 비단 휘장을 바쳤고, 그 외 의복이나 그릇 따위도 무수히 바쳤다.

광(光) 선사가 궁중에서 바친 법의를 법운불조(法雲佛照) 선사에게 돌려주었고, 법운은 다시 홍주 보봉담당 화상에게 기증하면서 편지로 “지금초 법의를 사제에게 드리니, 선사(先師)의 도를 퍼 주시오.” 하였다.

담당이 돌아가신 후에는 산문에 간직하여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제36화]** 조각(照覺)선사가 늑담에서 호계로 옮겨 온 것은 왕자순 관문(王子淳 觀文:子淳은 字, 觀文은 道號. 觀文王韶 기사. 黃龍 南 제자)의 청에 따른 것이다. 개당 한 후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승당(陞堂)과 소참과 입실을 거른 적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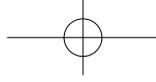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일찍이 “회당과 진정 동문의 여러 늙은이들은 선사(先師)의 선을 참구했을 뿐, 선사의 도를 얻지는 못했다.” 하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스님[대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대개 조각 화상은 평범 무사하여 지견과 알음알이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도를 삼고 더 이상 오묘한 깨달음을 구하지 않았고, 제불제조와 덕산·임제·조동·운문의 진실한 돈오견성법을 방편문이라 하였다. 《능엄경》에서 말한 “산하대지가 모두 모염진심 가운데서 나타난 물건이다.” 한 것을 허튼 소리라 하면서 또한 방편문이라 하였다. 그는 고인이 현묘를 설한 것을 선(禪)이라 하면서,

옛 성인을 속이고 후손을 귀머거리나 장님을 만들어 버렸으니, 눈에 핏대가 없고 살갓에 피가 흐르지 않는 멍청한 무리들은 여지없이 전도하여 태연히 이를 깨닫지 못하니, 참으로 연민스런 일이다.

《원각경》에 “말세 중생은 성도를 바라면서도 깨닫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다문만 더하고 아견만 증장할 뿐이다.” 했으며, 또 “말세 중생은 훌륭한 선지식을 찾으나 사견을 가진 자를 만나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 이것을 외도 종자라 부른다. 이것은 샅된 스승의 허물일 뿐 중생의 잘못이 아니다.” 하였으니, 어찌 헛된 말씀이겠는가?

그러므로 진정 화상 소참에 “요즘 어떤 자들은 ‘평상의 마음이 도다.’ 한 것에 집착하여 이를 최고의 진리라 여기면서,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 산은 산, 물은 물, 중은 중, 속인은 속인이며, 큰 달은 30일이요, 작은 달은 29일이라 하니, 모두 초목에 붙은 귀신의 소견이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결같이 미혹해 버린다. 그러다 갑자기 저들에게 ‘내 손이 어찌하여 부처님 손과 같은가?’ 하고 물으면 ‘이것은 화상의 손입니다.’ 하고, ‘나의 발이 어찌하여 당나귀 발과 같은가?’ 하고 물으면 ‘이것은 화상의 다리입니다.’ 하고 말하며, ‘사람마다 태어난 인연이 있으니 어떤 것이 자네의 태어난 인연인가?’ 하면, ‘저는 아무 곳의 누구입니다.’ 하고 말하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잘못 알지 마라! 무릇 온갖 행위에 평상의 한 길만을 온당하게 여겨 이것만을 고집하면서 감히 달리 한 길도 옮기려 들지 않고 도리어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그리하여 마치 장님이 길을 갈 적에 언제나 지팡이 하나를 잠시도 버리지 못하고 단단히 잡아 쥐고



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하였고, 회당 화상은 학자들에게 “너희는 여산의 일없는 껍질 속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자손들은 마치 식은 재와 같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제37화】** 불조 고(佛照 杲) 화상이 처음 귀종사에 머물며 정밀히 도를 행하고 잠시도 게으름을 부린 적이 없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좌선을 마치고 승당의 화롯가에 앉아있노라니, 홀연히 두 스님이 승당으로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눈썹이 무성하고 머리가 눈처럼 센 노승이었고, 한 사람은 소년인데 모두 용모가 단정하고 엄숙하였다.

고(杲)가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나의 제자들 중에 이런 스님들이 있었던가!’ 하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노라니, 잠시 후 다시 두 사람이 승당을 나갔다.

고가 그들의 뒤를 뒤쫓아 가서 보니, 불전 안으로 들어갔다. 고도 따라 들어갔다. 등불 그림자가 휘황하고 향로에는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었다. 고가 향을 사르고 불전에 예를 드리니, 두 사람이 다시 밖으로 나갔다. 다시 그들의 뒤를 쫓아 불전 앞에 이르러 어찌다 그들의 행방을 놓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향합을 불전 앞에 둔 것을 잊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하며 도로 가서 가져오려는데, 불전 문이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그래서 직전행자(直殿行者)인 수순(守舜) 스님을 불러 문을 열게 하니, 순이 열쇠로 문을 열어주었다. 향로에는 향연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향합은 보계(寶槿) 위에 그대로 놓여있었으나 자신은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이것은 묘희 화상이 불조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로, 그때 수순 스님도 곁에서 증명해주었다. ☺

## 간화선 수행으로 일상의 행복한 삶 이룰 수 있습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문화복지회**

※수좌 복지기금 후원 문의처

(재)선원수좌선문문화복지회 ☎ (02)922-9967

<http://www.seonsujoa.org>

e-mail : seonsujoa@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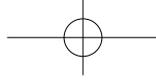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 지정병원의 확보와 치료, 수좌 복지체계 확립의 지름길

**제호 지정병원 동보한방병원(치질, 치핵 치료 / 053-425-4085)**

- 의료 전문의 불자님들의 큰 관심과 재능기부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법인 복지사무처로 해주세요. ☎ (02)922-9967





# 겨울꽃밭

법념 스님(경주 흥륜사 한주)

십이월이 와도 연일 따스해 섬초롱의 잎은 아직 푸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을 이기지 못해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누렇게 뜨거나 말라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꽃밭정리를 선뜻 하지 못하고 서성인다. 가을이 남아 있기라도 한 듯이.

오늘 널 미루다가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봄부터 가을까지 분홍 꽃을 피웠던 두메달맞이는 잎을 다 떨어뜨리고 마른 줄기만 남았다. 맨드라미는 큰 꽃으로는 차를 만들고 작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은 그냥 버려두었더니 제풀에 말라 비틀어졌으나 달구벼슬 같은 꽃은 나보란 듯이 빛깔이 선명하다. 피고 지었던 꽃의 흔적은 거의 없어져버렸으나 난초의 뽀뽀한 잎들은 누렇게 변해 아예 퍼드러져 누웠다.

전지가위로 자를 건 자르고 손으로 뽑을 건 뽑으니 꽃밭이 제법 흰해졌다. 씨가 떨어져 꽃밭에서 자란 결명자는 자손을 많이 퍼트려 가는 콩꼬투리 같은 주머니에 반들거리는 갈색 열매가 소복하게 들어있어 수확의 기쁨도 누렸다. 그 외에 국화, 나리, 백합, 야기 범부채, 매 발톱 등은 다년초여서 내년을 위해 즐기만 잘라주었다. 정리하다보니 여름에 먹고 버린 옥수수자루가 시커멓게 썩어 있다. 누가 꽃밭에 그냥 버렸는지 흉한 몰골이 되었다. 거름이 되라고 호미로 파 땅속에 고이 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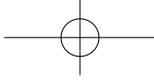
담장 한쪽에서 자란 산수유는 빨간 열매를 탐스럽게 매달고 있다. 잎이 다 떨어진 가지에 달린 선홍빛

열매는 햇빛을 받아 더 붉게 보인다. 작년까지는 떨어진 열매를 주워 씨를 일일이 빼내고 바삭 말려 차를 끓여마셨다. 이젠 그마저 하기 싫어 아깝지만 쓸어버렸다. 산수유가 이별을 아쉬워하며 낙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누군가 주어가서 차를 만들면 좋으련만... 괜히 죄를 지은 것 같아 고개가 움츠러진다.

꽃밭을 정리할 때 반가운 놈은 상록수이다. 동백, 남천, 먼 나무, 호랑이발톱 등은 별로 손질 할 것이 없다. 그냥 두어도 푸른 잎을 달고 겨울을 잘 넘기기 때문이다. 대신 낙엽수인 미스 김 라일락, 조팝 나무, 미선나무, 박태기 등은 가지치기를 해서 겨울을 잘 나도록 힘을 덜어주었다. 돌아보니 꽃밭이 제법 멀끔해졌다. 밖에 있는 꽃밭은 대충 정리되어 월동준비가 끝난 셈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본격적인 일이 또 남아 있다. 겨울꽃밭을 실내에 만드는 일이다. 그러려면 밖에 죽 늘어놓은 선인장과 다육이 등의 화분들을 집안으로 들여와야 한다. 열대식물이라서 남쪽으로 나있는 창가와 마루에서 겨울을 보내도록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런 일들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꽃을 좋아하다 보니 겨울에 들어오고 봄에 내다놓는 일들이 신나기만 하였다. 이젠 나이 든 만큼 점점 힘들어졌다.

한 때는 야생화에 꽃혔다. 맹춘(孟春)인 이른 봄부터 산이나 들로 꽃을 보러 소다녔다. 잔설이 남아



있는 봄날에 지인들과 함께 산에 올랐다. 눈 속을 뚫고 나와 핀다는 ‘변산바람꽃’을 보기 위해서다. 경주 근교에도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엉덩이가 들쭉여 쪼미 쭈신 것이다. 산속으로 들어가니 봄기운이 저 멀리서 눈치만 보고 성큼 다가오지 못한 자리에 겨울이 아직 버티고 있다. 눈이 쌓여있는 사이로 하늘하늘한 푸른 잎과 함께 하얀 꽃을 피운 가녀린 자태가 눈에 들어온다. 바로 그 꽃이었다.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다. 쳐다만 보고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진정으로 사랑해서다. 야생화가 있을 곳은 바로 그곳이기에.

해를 거듭하다보니 꽃밭도, 화분도 관리하기가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위로 옆으로 자꾸 자라나니 화분도 커질 뿐만 아니라 개수도 많아져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서다. 게다가 집안에 들여놓은 화분은 일일이 손질을 해주어야 하고 물을 줄 때 화분받침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조심스레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랐다. 나이가 드니 몸이 점점 느려져 뭐든 척척 해내지 못해 언제까지 겨울꽃밭이 계속될지 모르겠다. 싱싱하고 예쁘게 키우려면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하기에 서서히 자신이 없어진다. 꽃은 정성을 들인 만큼 해마다 잘 자라나건만 가꾸는 나 자신은 나이 들수록 점점 기운이 줄어드니 어인 속셈인지 모르겠다.

작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올해부터 부쩍 힘들어졌다. 화분무게가 온 몸에 실려 허리가 빠근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는 못 속인다더니 맞는 말이다. 서너 시간이면 마무리 될 줄 알았건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아침부터 서둘러 반나절이 지났으나 절반 밖에 정리가 안 돼 절로 한숨이 새나왔다. ‘이젠 늙었구나.’ 싶은 생각이 나니 더더욱 한심스러웠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더니 밤늦게야 마무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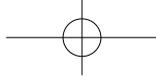
가는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 꽃을 아무리 사랑

한다하더라도 건강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 힘에 부치니까 내년엔 화분의 개수를 줄여야겠다고 마음먹는다. 크고 작은 것들이 칠십여 개가 넘으니 너무 힘들어서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내년이 되면 그런 마음은 다 사라지고 다시 다 들여놓으리라. 사랑하는 자식들을 모두 껴안고 가야지 유기분(遺棄盆) 신세를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다. 아닌 게 아니라 남이 갖다버린 화분을 가져다 키운 것이 많아 정이 들었다. 비밀비실하던 것을 데려와 곰상스레 보살피며 키운 놈이라 더 애착이 가기 마련이다. 그놈이 점점 기운을 차려 싱싱하게 잘 자라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그런 놈을 어떻게 또 버린단 말인가.

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은 황량한 겨울, 안쪽은 따스한 봄으로 갈리니 두 개의 계절을 함께 맛보는 셈이다. 화분을 안으로 이사시킨 덕분에 겨울에도 봄처럼 싱싱한 이파리를 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특권을 얻은 것만으로도 어디냐. 암만 힘이 들어도 겨울꽃밭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드려야겠다.

며칠 새 비가 오고 흐리더니 오랜만에 해가 선을 보인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볕을 받고 꽃들이 함뻍 웃는다.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기다림 끝에 맛보는 달콤한 기분이라. 겨울을 보낼 동안 같은 공간에서 서로 숨 쉬며 보낼 자식 같은 놈들이라 살가운 마음으로 눈길을 보낸다. 이번 겨울에도 사이 좋게 잘 지내자고 말을 건네니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마루 안으로 햇살이 들어와 봄날처럼 따뜻하다. 나도 꽃처럼 햇살을 받고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야말로 회춘(回春)하는 게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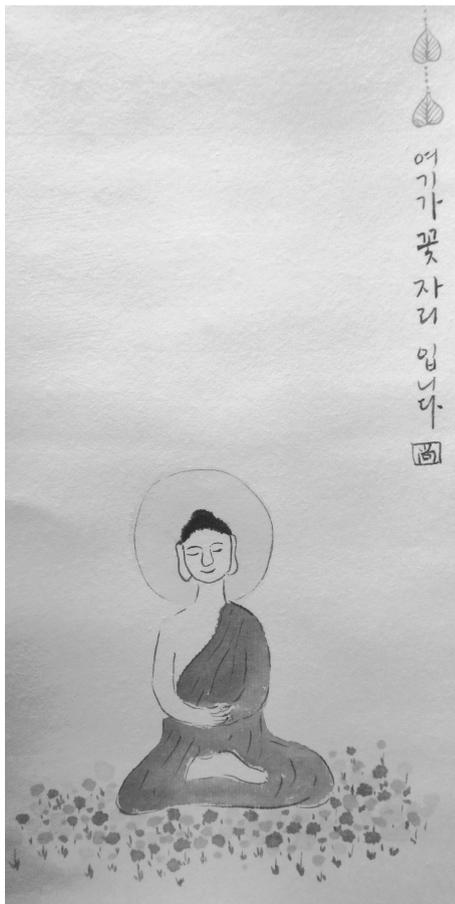
한겨울이 두렵지 않다. 푸른 봄을 선물해 줄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몸도 마음도 봄기운을 받아 건강해질 것만 같다. ☺



●●● 쉬고 또 쉬고

# 마음, 항상 지금 여기!

희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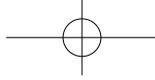
오늘 새벽예불에는  
홀로  
죽비를 치고 앉아 보았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고요한 호흡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단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가  
때로는 연기처럼  
때로는 회오리 바람처럼.

고마운 오늘의 에너지입니다.

마음,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 불교의 발상지, 숲

박희준 / 사찰생태연구소 운영위원, 한국사찰림연구소 부소장

## 사찰과 함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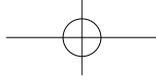
사찰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숲과 함께' 있습니다. 사찰은 숲이 있어 사찰답고 숲은 사찰이 있어서 더욱 빛이 납니다. 마치 상대를 더욱 빛나게 하는 좋은 인연인 듯합니다.

사찰이 왜 이렇게 늘 숲과 함께일까요? 언제부터 사찰은 숲에 있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동산이고, 고행하시던 곳, 최초로 설법하신 곳은 녹야

원이며, 해탈하신 곳은 나이란자나 강이 보이는 숲속의 보리수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찰은 언제나 숲과 함께 했습니다.

불교는 숲에서 탄생했고 숲에서, 자연의 이치에서 깨달음을 찾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불교 발생 초기 사찰인 죽림정사나 기원정사도 숲에 지어졌고 지금도 사찰은 산중의 자연환경 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자 수행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터전인 사찰이 숲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나요? 사찰은 본래부터 숲에 자리했습니다. 숲은 사찰의 자연환경인 것입니다. 사찰과 숲은 하나입니다.



〈선운사 계곡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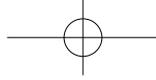
룸비니동산, 기원정사, 죽림정사, 녹야원 등등 불교 성지는 모두 숲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는 숲과 함께 했습니다. 숲에서 나고 숲에서 수행하였으며, 숲에서 설법하였고 숲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처럼 숲의 종교라는 정체성은 불교 발생 초기부터 불교와 숲이 따로 있지 않았음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불교 발생 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에도 나타납니다.

1920년대 편찬된 〈조계산 송광사사고〉 산림부에는 ‘불사를 세우는 곳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어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존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후학들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덕분에 우리 역사 속 어떤 나라, 어떤 숲이라도 절 소유 임야에는 나무가 울창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송광사의 임야는 7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계속해서 수호해 온 곳” 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전영우. 2015. 「전영우의 사찰 숲 이야기 2. 불교, 숲의 종교」. 법보신문).

그러면 이 땅에서 사찰 숲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 사찰림의 기원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천경림’ 과 ‘신유림’ 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 제3권 제3 흥법편에는 석가모니 이전에 성도하고 열반하신 부처님 때의 절터였고 앞으로 불법이 영원히 유행할 곳으로 일곱 곳의 절터를 설명하는 데에서 첫 번째로 ‘천경림’ 을, 여섯 번째로 ‘신유림’ 을 들고 있습니다. 절터를 숲으로 이야기 하니 이미 이 땅에서도 천 년 전부터 숲이 바로 사찰이었음을 이해하는 단초로 볼 수 있습니다.

### 숲의 공익기능

숲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다양한 기능을 숲의 공익기능이라 말합니다. 즉 수원함양, 토사붕괴(산사태 등) 방지, 동물들의 삶터, 사람들의 휴식처 제공, 산소 생산(이산화탄소 흡수), 대기정화, 산림치유 등 숲의 다양한 역할들이 그것입니다. 이런 공익적 기능을



〈전등사 느티나무〉

하는 숲은 대개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10% 이상이 사찰 숲입니다. 어디 국립공원,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같은 자연공원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임야의 1% 이상이 사찰 숲이라 하니 사찰 숲은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수행자들이 지키고 가꾼 사찰 숲

이렇듯 다양하고 중요한 공익기능을 하는 현재의 사찰 숲이 있기까지 전해지고 지켜진 과정들을 알아보고 기록하기 위하여 사찰생태연구소에서는 2015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전통사찰 사찰림 연구 및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양양군 오봉산 낙산사를 비롯하여 월정사, 법주사, 수덕사, 내원사, 통도사, 해인사, 봉암사, 운문사, 직지사, 송광사, 실상사 등 총 12개 사찰의 사찰 숲에 대한 조사와 스님 인터뷰를 시행했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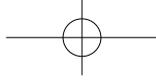
6.25 한국전쟁 이후 전 국토가 황폐해진 상황에서 그나마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온전한 숲은 사찰 숲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찰 숲이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하여 특히 노스님들의 말씀을 통해 기록을 하고자 했습니다.

향후 노스님들께서 입적하시고 나면 아무런 기록조차 남길 수 없다는 조바심으로 스님들을 찾아 다녔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결과 중 일부를 과거 수행자들이 어떻게 숲을 지켜냈는지 사례로 올리고 현재와 미래의 수행자들이 사찰 숲을 지켜가는 방향과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월정사 전나무숲〉

#### － 원행스님(월정사 부주지) 말씀 中 발췌

“... 은사스님인 탄허 스님이나 한암 스님은 제가 처음 출가하니까 어느 날은 도시락 김밥을 싸라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천막 하나를 준비하고



〈부석사〉

사하촌에 거주하는 직원 두 사람을 데리고 도시락 일주일분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여기까지가 월정사 땅이다, 여기까지가 월정사 땅이다.’ 하면서 오대산 산림 경계를 알려주셨어요.

지금 대체적으로 오대산에 전나무 숲이 있는 곳은 6.25 한국전쟁 이후에 화전민들이 터를 잡았던 곳입니다. 이런 곳이 지금 숲이 된 것은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서 숲이 된 것이 아니고 묘목을 심은 나무가 다 성장해서 숲이 된 거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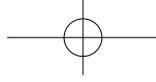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화전민들은 화전을 일구어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터를 잡았던 곳에서 이주시키고 그 화전에 묘목 밭을 만들어 묘목을 키워 내 심은 전나무, 잣나무들이 지금 뻗뻗하고 울창한 숲이 된 겁니다. 사찰 숲을 조성할 때는 화전이 삶의 터전인 화전민들을 이주시키는 일처럼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예불 기도하듯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침에 묘목을 채취해오면 전 대중이 수행처럼 나무를 심었고, 스님들이 모자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일을 했어요. 6.25 한국전쟁으로 월정사가 폐사를 당해서

스님들이 5~6명뿐이었으니 인건비를 주고 사람들을 사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있어서 좋고, 산림을 위해서도 좋고 그랬어요...”

### 〈법주사 소나무 숲〉

#### － 월탄스님(법주사 회주) 말씀 中 발췌

“... 1984~1985년에 법주사 일대의 소나무를 솔잎혹파리가 먹어서 다 죽게 되었던 말입니다. 그때 충북도지사가 나한테 와서 ‘스님, 어차피 이 나무들은 다 죽는데 나무들을 발매를 해서 법주사 복원불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만약 그렇게 되면 ‘많은 나무를 살생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나무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작은 생물들까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솔잎혹파리야, 솔잎혹파리야. 너 살겠다고 이 산천을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 산관이 소나무가 다 죽고 민둥산이 되면 뭐가 되겠는가? 네가 좀 희생하고 이 산천을 살려달라, 그러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너는 인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속리산을 살려주고 많은 인간들이



복을 짓고 갈 것이니 그렇게 해줘라’ 하고 말입니다. 북천암을 가면서, 산판을 가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말이야, 점점 소나무 그것이 살아나더라 겁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던 소나무들이 점점 살아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소나무 숲이 존재하는 겁니다. ...”

### 〈해인사 소나무 숲과 축구장〉

#### – 종성스님(홍제암 암주) 말씀 중 발췌

“... 해인사에서 축구를 시작한 것은 내가 알기로 영암 스님하고 자운 스님 두 분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학인들 순발력도 필요하고, 하체 체력이 튼튼해야 한다고 해서 처음 창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없었고요. 우리가 강원 다닐 때만 해도 그것은 의무적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1시부터 2시까지 한 시간은 의무적으로 축구를 해야 했어요. 어른들이 먼저 나가서 하라고 하니깐 안 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몸을 단련해서 산에 불을 끄고 그랬어요. ...”

### 사찰 숲과 더불어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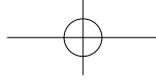
최근에서야 사찰 숲에 대한 공익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산림의 약 1% 이상이 조계종 소속 사찰의 사찰 숲입니다. 아마도 전체 사찰 숲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특히 2007년 1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동안 엄청난 게 많은 인파가 산으로 밀려들고 있어 숲 훼손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 어떤 산이든 마찬가지로 많은 등산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등산객들에 비하여 산행 예절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산이나 숲에 대한 예의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쓰레기 집어넣고, 술 마시고, 계곡에 몸 담그고, 불 지피서 고기 굽고...

대부분의 산중 사찰에서 숲은 지키고 가꾸는 대상이었습니다. 나무가 없어 황폐한 곳에는 나무를 심고, 도벌을 막기 위해 번을 서고, 나무들이 병이 들면 기도하고, 산이 불이 나면 불을 끄면서 사찰의 수행자들이 지키고 가꾼 사찰 숲입니다. 왜 사찰에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의 근본사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와 더불어 숲이 있고, 숲과 더불어 내가 있습니다. 사찰과 더불어 숲이 있고, 숲과 더불어 사찰이 있습니다. 사찰 숲은 우리와 더불어 숲입니다. 생명생태 선지식 김재일 선생님의 아래 글은 이러한 사상을 잘 표현하고 있기에 소개합니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명옥헌 앞뜰은 배롱나무 꽃이 지천입니다. 참으로 배롱나무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추운 겨울에도 배롱나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물론 웅웅거리는 꽃등애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니, 배롱나무 하고 말하면 그 말 속에는 꽃등애가 이미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배롱나무’는 꽃등애와 함께 ‘배롱나무’이며, ‘쉬리’는 맑은 여울과 함께 ‘쉬리’이며, ‘박새’는 숲과 함께 ‘박새’입니다. 모든 생명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자연과 함께 비로소 ‘인간’입니다. ‘나’ 역시 그대들과 함께 비로소 ‘나’입니다. ‘배롱나무’는 꽃등애의 다른 이름이며, ‘박새’는 숲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나’는 그대들의 다른 이름입니다.” (김재일, 2006. 「생명산필」 종이거울.)⊕



# 원한을 갚는 도의 깨침 「이입사행론」

여현 스님 / 동국대 강사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 아래서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과 방법을 중생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다. 가신 지 어언 2천 6백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별한 시간만큼, 긴 세월만큼 깊은 혼란 속에 빠져있다. 훗날리는 꽃잎처럼 시국이 어지럽다. 부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이런 혼란은 적거나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가 머릿속을 떠돌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 현상에 수행자로서 일조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자책도 일어나 부끄럼이 앞선다. 불교가 사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 아니 부처님께서 하신 역할을 몇 십분의 일이라도 하지 못함에 고개를 들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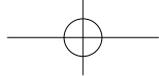
이처럼 혼란한 시대에 부처님처럼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시던 인물들 가운데 선승들도 많이 계셨다. 철저한 수행을 밑바탕으로 한 굳건한 선승들이었다. 남루한 복장을 하고 검박한 생활을 영위하지만 눈빛만은 사람들을 압도한다. 이 중 보리달마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승이다. 인도의 선을 중국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동북아시아에 널리 전파했다. 현재도 달마를 배제하고 선

을 말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리달마는 간략히 달마로 불리면서 세월을 따라 변모해 왔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달마의 모습은 긴 기간 동안 첨가되었다. 바라문의 셋째 왕자, 양나라 무제와의 문답, 면벽 9년, 사후의 이야기 등 문헌에 따라 변천과정을 거쳤다. 그 만큼 달마는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원하는 인물로 변모한 것이다.

달마의 위대함은 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보리달마의 이름으로 저술된 문헌들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입사행론(二入四行論)」만이 달마의 저술로 인정받고 있다. 나머지는 달마의 가탁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달마의 모습이 변천한 것처럼 달마의 이름을 빌려 문헌에 권위를 높이하고자 했다. 달마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시 선종에서 달마와 연결이 있어야 선승이나 문헌으로써 인정받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입사행론」은 간결하면서도 중국 선종의 기본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문헌이다. 달마 이후 모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중심 문헌이다.



제자 담림이 스승인 달마에 대한 행적을 간략히 밝히고 본문이 시작된다. 내용은 매우 간결하다. 여기서 달마는 부처님의 말씀을 빌린 이입(理入)과 이에 따른 실천 수행으로 행입(行入)을 주장한다. 불도 수행의 모든 것을 이 두 가지로 정리한다. 여러 가지 이론이 존재하지만 이입과 행입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입은 보원행(報圓行), 수연행(隨緣行), 무소구행(無所求行), 칭법행(稱法行)의 네 가지로 설명한다. 달마의 선사상과 수행관이 나타나 있다.

처음 보원행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피식 웃음이 나왔다. 왜 하필이면 원수를 갚는 수행을 하라고 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달마는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달마의 가르침은 하수에 불과하다. 끊임없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달마는 원수를 갚으라고 말한다. 물론 보원행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썩 내키지 않는 수행의 제목이었다. 하필이면 양갓음이란 말인가? 실소를 머금은 어리석은 중생은 눈으로 글자만 보았기에 그 참 뜻은 알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다.

살다가 보면 원하는 일이 성취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을 맛보는 것의 연속이다. 남들과 달리 유달리 이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꾀갓하게 애를 써도 좀처럼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마치 블랙홀에 빠져든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 장벽과 같이 마주 대하고 있다. 사무치도록 세상이 원망스럽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절이 한번 쯤 온다면 이 때 보원행을 실천해야 한다.

괴로움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과거 생애 지은 인연에 의한 결과가 지금의 괴로움이다. 너무 괴로워서 팔딱팔딱 떨 정도일 때, 스스로가 제어가 되지 못하고 세상만을 원망할 때 보원행은 유용하다. 괴로움의 인연관계를 알지 않으면 현재의 괴로움에서 치유될 수 없을 때 보원행을 한다. 모든 일을 놓고 도를 깨치고 싶어진다. 나를 미치게 하는 괴로움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호흡을 길게 하며 참선을 한다.

「이입사행론」은 워낙 짧은 글이어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기에 어렵다. 「경덕전등록」(동국대 역경원), 「선문촬요」(민족사) 등에 편집되어 있다. 「경덕전등록」은 끝 쪽인 권30에, 「선문촬요」는 앞쪽에 편집되어 있다. 때로는 짧아서 찾아서 펼쳐보는 것도 힘들 때도 있다. 그렇지만 간결하게 선사상을 표출한 달마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기도 한다. 정곡을 찔러 심금을 울리는 것은 단 한마디의 말이면 된다. 그렇지만 이런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도 또한 아니다.

가끔 네 가지 행입을 생각한다.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노력하는지 살펴보고 싶을 때가 있다. 행입은 어떠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이다. 느리면 느린 대로, 날카로우면 날카로운 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만물은 각기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여여하게 참선에 몰입해 본다. 언젠가는 우주의 진리를 깨친 여여불이 될 것이라는 신심을 가지고 참선을 한다. ☺



# 부처님 재세 시 마티카의 어머니

정운 스님 / 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강사

어느 해, 비구 스님 60명이 부처님께 좌선 수행에 관한 설법을 듣고 수행 주제를 받게 되었다. 스님들은 곧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나섰고 마티카라는 마을에 이르게 되었다.

헌데 마을 촌장의 이름도 마티카였다. 촌장 마티카의 어머니는 마을에 60명이나 되는 스님들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공양 올리기를 자청하고 나섰다. 그녀는 스님들께 무엇을 원하는지 여쭙었다. 스님들은 ‘안거할 장소를 찾고 있는 중’ 이라고 답했다. 마티카의 어머니가 말했다.

“스님들께서는 석 달간의 우안거를 여기서 보내십시오. 저는 불교 신자로서 3귀의 5계를 받았으니 스님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과 음식을 모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은 그녀의 호의에 감사하며 이 마을에서 안거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그러자 그녀는 가족을 총동원하여 스님들이 거처할 수도원을 짓는 것을 시작으로 후원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마티카 어머니의 후원에 감동한 스님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우리들은 이번 안거동안 수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았고, 공양 물품조차 문제가 없는 것 같소.

이 마을 사람들과 마티카 어머니의 도움 덕분이니 우리는 이런 기회에 더 열심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각자 방에 머물면서 묵언을 합니다. 긴급 사항이 생기면 종을 쳐서 알리기로 하고, 하루 한 번 탁발 나가는 시간에만 모여서 마을로 갑시다. 우리가 한가하게 놀며 신도들의 시주나 받아먹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해 하루 빨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처님과 신자들에게 은혜 갚는 길이기도 하구요. 수행할 때는 홀로 머물고, 저녁 시간에만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법랍이 높은 장로의 법문을 듣도록 합니다.”

역대 스님들의 어록에 보면, ‘출가수행자로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밥만 축내면 아랫마을 시주집의 소가 되어 그 빛을 갚아야 한다’ 고 하였다. 이 사상은 현 시대의 스님들에게도 불문율이다. 그래서 스님들은 특별한 소임을 마쳤거나 책을 저술했을 때도 ‘밥값을 했다’ 는 말을 한다. 다시 원 내용으로 돌아가기로 하자.

어느 날 마티카의 어머니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공양물을 가지고 수도원을 찾아갔다. 그런데 스님들이 한 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종을 치자, 긴급 상황인줄 알고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 모습에 마티카의 어머니가 스님들께 물었다.

“스님들께서는 왜 각자 따로따로 수행하십니까? 서로 다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기 방에서 홀로 좌선 수행하고 있습니다.”

“좌선 수행이라니요? 좌선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좌선 수행이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32가지 부분을 세심하게 분석,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의



본성을 올바르게 관하고, 마음의 현상에 주의를 기울여 실재의 고유한 특성인 부정(不淨)하고, 고통스러우며, 무상(無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이 익어지면 모든 집착과 번뇌로부터 벗어나 생사에서 해탈하는 것입니다.”

한 스님의 설명이 끝나자, 마티카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스님들, 그런 수행 경지는 오직 비구 스님들만 오를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구든 수행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렇다면 제게도 그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 이후 스님 중 한 분이 마티카의 어머니에게 좌선 수행법을 자세하게 지도해 주었다. 그녀는 열심히 정진했다. 얼마나 열심히었는지 매우 빠른 속도로 아나함과를 성취하고, 네 가지神通력도 함께 얻었다. 이윽고 아나함과에 오른 마티카의 어머니는 스님들의 수행 진척이 잘 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스님들 중에 아라한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왜 저 스님들이 수행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 걸까? 지금 이곳은 스님들이 수행하기에 장소도 적합하고, 함께 모인 대중들의 화합도 좋은데.....’

이렇게 궁구하다가 그녀는 음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마티카의 어머니는 그날부터 스님들에게 특별한 음식을 공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각종 쌀죽과 여러 가지 견고하고 부드러운 음식에 향미를 넣어서 공양을 올린 것이다. 그러자 점차 스님들도

마음에 안정을 찾으면서 삼매를 증득해 아라한과를 성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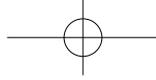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스님들이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마티카의 어머니 같은 위대한 신자의 도움으로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보살님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 우안거가 끝나는 대로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간의 이야기를 전하자.”

소남은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었다. 먼저, 비구 스님들이 자신보다 낮은 수행의 단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마티카의 어머니는 스님들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연로한 보살님이 짧은 기간에 해탈한 것에서 수행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극함만 있다면 통한다는 점이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노 보살님 한분이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다. 경북 김천 연호사(蓮濠寺)에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고 최금옥 보살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놀랍게도 경기도 벽제에서 화장 후 푸른색과 노란색, 흰색을 띠고 있는 19과의 사리가 발견된 것이다. 이 절의 주지 스님은 전 종정 스님으로부터 사리임을 입증하는 친필확인서를 받고 극락보전에 사리를 봉안했다.

고 최금옥 보살은 연호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보스님의 속가 모친으로 94세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살아 생전 40여 년을 전국 유명 사찰에서 수행했으며, 그녀의 일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를 시작으로 참선, 독경, 사경 등을 하였다고 한다.㉔



# 미국 명상센터 답사기 1

정리 : 박희승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홍광표 (동국대학교 사찰조경학과 교수)

본 회는 선을 세계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종립 특별수도도량 봉암사와 함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세계의 명상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명상센터 건립 운영에 참고하고자 지난 2016년 1~4월 중 유럽, 미국, 일본의 여러 국제선센터들을 답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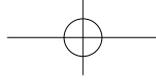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레이크 쉬라인 템플**  
(Lake Shrine Temple, 미국 LA 소재)

미국 명상센터 답사에는 특별히 혜국 스님(석중사 금봉선원 선원장)이 동참, 참가 대중을 이끌었다. 미국 답사단은 LA 반야사 주지 현철 스님의 주선과 안내로 먼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 명상센터들을 둘러 보고 동부 보스턴과 뉴욕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현철 스님은 본 법인 대표이사 의정 스님의 법주사 강원 도반으로 인연이 깊

은 분이셨다. 이번 답사에는 특히 미국 동부 답사 코스에 동참하여 직접 가이드도 하고 대중공양까지 내시며 정성을 기울이셨다.

LA에서 현철 스님의 안내로 찾아간 첫 답사지는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명사가 파라마한사 요가난다(1893-1952)가 1950년에 세운 <레이크 쉬라인 템플>이다. 이곳은 전 세계에 600여 개나 된다는 요가난다 명상센터 중 하나로 LA 해안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다. 자연적으로 샘솟는 호수와 잘 가꾼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이 곳은 부지 면적이 약 10에이커(40,460㎡)에 이른다. <레이크 쉬라인>의 정원에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가져온 나무와 꽃, 백조, 오리, 잉어 등등 다양한 식물상, 동물상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덕분에 명상수행을 목적으로 오는 이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즐겨 쉬러 오는 명소로 연간 방문자가 무려 10만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레이크 쉬라인>의 중심 사원은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흰색 건물로 세워져 있으며 건물



〈레이크 쉬라인 중심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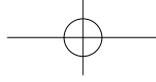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꼭대기에 금색 연화봉을 올려놓아 상징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신성의 상징, 무한대의 가능성을 향한 정신의 깨우침을 연꽃으로 상징화한 것이리라. 이곳에는 세계 5대 종교를 기린다며 각 종교의 심볼들이 설치되어 있고, 부처, 예수 등 성인의 사진들이 걸려 있기도 하다.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요가난다이지만 세계 5대 종교를 포용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표현이라 한다. 물론 요가난다도 그런 반열로 추앙하며 센터 곳곳에 그의 흔적들도 설치해 두었다. 또 이곳에는 마하트마 간디를 기리는 국제평화기념조형물이 세계 최초로 세워져 있었다. 여기에는 인도 밖으로 나온 유일한 간디의 유골이 모셔져 있다 한다. 간디에 대한 요가난다의 존경심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간디의 비폭력에 관한 목소리는 사람의 가장 높은 곳의 양심을 매료시키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죽음이 아닌 삶으로, 파괴가 아닌 건설로, 증오가 아닌

사랑의 기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스스로 협력하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에 담아 애송하였다는 「영혼의 자서전」의 저자인 요가난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레이크 쉬라인에는 수행자들을 위한 25개의 방과 채식 식당, 그리고 명상실이 있다. 방 종류도 다양하다. 독방과 동성의 수행자 2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방, 부부방 등등. 욕실도 각 방은 물론 공동욕실도 마련되어 있고 방마다 발코니를 두어 개인적 수행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큰 시설을 6명의 유급직원이 50명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봉사 신청자는 매주 무려 200명 정도나 된다 하여 많이 놀랐다. 봉사자를 위한 아늑한 휴게실도 인상적이었다. 매주 일요일 열리는 설법에는 450석 메인 명상홀이 꼭 차서 옆의 작은 명상실까지 활용할 정도.



●●● 수행의 현장 ③

시설을 둘러본 뒤 센터 운영자들과 근 한 시간 넘게 좌담회를 가졌다. 이 때 해국 스님께서 물으셨다.

“요가난다가 말하는 정신의 향상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정신적인 고도화, 생활규칙, 내적 체험의 정신 상태이다.”

답이 애매해 더 물었더니 ‘요가난다의 설교를 들으면 기쁨과 환희심을 느낀다.’ 라고 답한다. 또 5대 종교의 통합에 대해 물었더니 ‘일리의 통합이 아니라 각 종교의 공통요소인 환희, 행복, 자비를

강조하며 그것을 공감하고 명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가르친다.’ 라고 답한다.

요가난다의 출가승들은 인상이 편안하고 친절하였다. 모두 독신으로 5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간소함, 독신, 무소유, 남을 비방하지 않기, 가르침에 헌신하기가 그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출가자 14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LA에만 남녀 출가자가 200명에 이르고, 전 세계에 요가난다 수행센터가 600개나 된다니 굉장한 조직력이어서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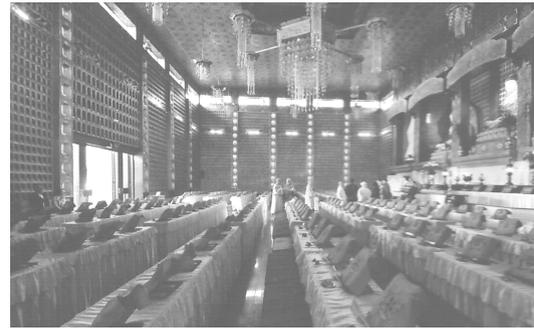
## 서래사

(西來寺, 미국 LA 소재)

캘리포니아 LA 인근 하시엔다 하이츠시 남쪽 산자락에 세워진 불광산 서래사는 그 규모가 가히 압도적이다. 부지 15에이커, 평면 면적 102,432 평방피트에 언뜻 거대한 궁 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 명, 청시대의 고풍스런 건축양식의 건물이 수많은 계단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대만 불광산종 미주 포교당으로 1988년 개원하였다. 종조인 성운대사가 서쪽에 불법을 전하러 왔다는 의미로 절 이름을 서래사라 지었다. 대만 불광산종 미국 사찰은 서래사를 포함, 약 30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00개 이상 사찰에 1,300여 명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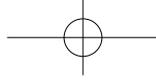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서래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좌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선방, 회의실, 박물관, 채식 식당, 명부전, 기



〈서래사 대웅보전 내부 전경〉

념품과 불서를 파는 쇼핑점 등이 있다. 한자 품(品)자 형태로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데 가히 대가람의 형태이다. 절은 언제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특별기도가 있는 날은 24시간 개방되기도 한다.

답사단을 따뜻하게 맞아준 서래사 주지는 젊은 스님으로 서래사 역사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영어로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그에 의하면 서래사는 가장 인간적인 불교(Humanistic Buddhism)를 추구하



〈서래사 선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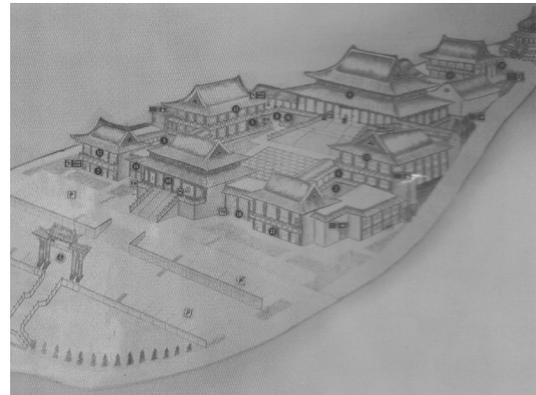
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종교 활동은 물론 교육과 문화, 자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동서양의 정신적, 문화적 교류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서래사 곳곳을 둘러 보았다. 목적이 있는 방문이었던 만큼 선방부터 찾아갔다. 바닥은 대리석이고 벽 가까이는 나무 마루식의 평상으로 된 좌선 공간이다. 상당히 넓다. 답사가신 분들이 선승들이라 그런지 선방만 보면 일단 가서 앉으시더니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누구도 ‘앉자.’ 라고 말한 이 없건만 혜국 스님을 필두로 좌복 위에 가부좌 하시고 이내 정진에 드신다.

회의장도 인상적인 장소 중 하나였다. 혜국 스님께서 “다른 건 다 그런데 이 회의장은 부럽네.” 하실 정도로 멋졌다. 호기심에 물어보니 UN본부 국제회의장을 본떠 만들었다.

서래사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었다. 일요일의 어린이 법회, 방과 후 학교, 토요일 중국학교, 썸머 스쿨 등등. 참가비도 아주 저렴하고 학교 숙제, 중국 전통 예절, 중국어 교육, 음악, 미술, 수영 등등 교육 내용도 다양하고 그 폭이 넓다.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법회, 경전강의, 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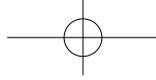
좌선수행 등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다. 주말에는 영어법회를 하는데 미국인 참여가 늘고 있다. 서래사가 세워지고 난 뒤에 중국인들이 주변으로 이사 와서 땅값이 몇 배로 높아지고 중국인 타운이 되었을 정도라니 부럽기만 하다. 서래사는 4년제 정규 서래대학도 운영 중이다. 미국에서 현재 불교대학은 서래대학과 덴버에 있는 삼발라의 나로파대학 뿐이다.



〈서래사 가람 배치도〉

이 큰 규모의 사찰을 비구 스님 5분, 비구니 스님 30분이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서래사가 택한 방법 역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었다. 참배객 안내, 각 시설의 운영과 관리, 청소까지 모든 사찰 업무가 자원봉사자에 의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봉사자들은 좋은 공덕을 짓는 것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임한다니 그 운영의 지혜를 우리도 꼭 배워야겠다.

서래사를 직접 방문하고 보니 대만 불광산사 성운 대사의 불사 원력에 다시 한 번 놀라고, 감사한 마음이다. 오늘 답사단의 이 걸음 또한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건립’ 을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걸음을 재촉했다.☺



# 내 안의 부처님 만나기

김복숙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정진해서 “참나” 를 찾아보겠다던 선방의 여러 도반님들! 대단한 각오를 한 듯합니다. 선풍기도 없이 자연바람을 도반 삼아서 참으로 잊지 못할 한 철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기만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무엇이 그 무더위를 잊게 하고 시원하게 ‘이 뺏고’ 를 붙잡게 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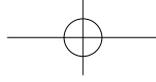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지난 98년도, 창문으로 가을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라디오 싸이클을 여기저기 옮기다가 어느 순간 불교방송이라는 멘트가 나오기에 그 자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애청자가 되어서 밤이 늦도록 듣게 되었습니다. 불교다, 부처다 하는 부처 “佛” 자도 모르면서 말합니다. 마음속에선 불자였나 봅니다.

하루는 불교대학 입학하라는 광고를 듣고 영남불교대학에 전화를 했습니다. 입학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하자 전화 받으시는 분이 “좋은 인연입니다.” 라 응대해 주는데 ‘여기다!’ 싶은 것이 마냥 신기하고 좋기만 하였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밤이 늦도록 해놓고 공부하러 가는 마음이 신기하도록 좋았습니다. 철없던 그때, 저는 세상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나 아니면 모든 것이 안 될 거라는 착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부도 그렇게 나에게 맞춰 받아들여 맞다, 안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의 잣대로 상대를 분별해서 집착하고 결벽증까지 심하여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처님의 가피였는지 서울로 오게 되었고 2007년 12월 금강선원 송년법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저는 많이 변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헤커큰스님께 공부하러 다니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준 것이 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전 큰스님의 경전 강의를 꾸준히 듣게 되었고 이어서 기초참선공부도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참선이라는 문에 들어는 왔지만 나날이 진전이 있어 보이는 도반들과는 달리 저는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아무 것도 몰랐지만 시키는 대로 집중만 했습니다. 도반들이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서 앉아 있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저는 모르기는 하지만 싫지는 않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참 많이도 흘렀습니다. 2008년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 어언 9년 차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도반이 인천 용화선원 화두수계법회에 동참, 정식으로 화두 받아 잘 해 보라고 권해주었습니다. 그간 가족들과 함께 큰스님께 화두를 받기도 했고 경전공부와 사경으로 충분히 즐겁게 공부해왔지만 내심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는 왜 안 되는지, 왜 모르는지 안타까워 몇 군데 명상센터를 찾아 또 강의를 듣고 실참도 해보았지만 도반들은 여기저기 흩어지고 저도 몇 달을 그냥 쉬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작년 5월 말, 용화선원 시민선방에 방부를 들었습니다. 이미 정진 중이던 도반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함께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6월이 되자 전 정식으로 선방 출근(?)을 시작했는데 웬지 올 곳에 온 것처럼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뱀지도 못했고, 이전에 듣지도 못했던 전강 조실스님 녹음법문은 저의 마음에 굳게 자리하고 떠나질 않았습니다. 매일 24시간을 조실스님과 송담 대선사님의 법비에 젖어 기둥으로 잡고 생활하면서 삶에 적용하여 흔들림 없는 공부를 지금껏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스님 법문을 들 때면 어떻게 애쓰시면서, 자상하게 말씀 하실 때는 분명히 뭔가가 있겠다는 믿음이 절로 생겨나 저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으로 어떤 생각도 하지 말고 참되게만 해 보자는 결심이 점점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대중을 위하여 환구참선법을 알려주실 때 그 회중에서 저도 함께 있음이 감사해 지극한 심정으로 경청하면서 그 무엇도 놓치고 싶지 않기에 오로지 성실히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선하면 가는 길에 부수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큰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만 알던 제가 배려할 줄 알게 되었고,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애착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옳고 그름을 내가 만드는 것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참선공덕인 것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처님 법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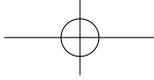
또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주최하는 <간화선 단기안거>에 동참하면서도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1회 때는 유치원생으로, 2회 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으로, 3회 때는 초등학교 상급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표스님을 비롯해 지도해 주시는 모든

스님과 스텝들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사 첫 해부터 너무도 자상하게 맞아주시고, 저같은 초보자도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저를 비롯한 도반들이 두루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게으름 피지 않고 더 용기 있게 힘내서 공부해야 한다는 계기가 되어 다들 열심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잘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다 참선공부라 생각해 올해도 단기안거에도 나름대로 다짐하고 참가했었습니다. 제 가족은 물론 일체모두를 잊고 오로지 선지식 스님들께 감사기도로 입재하고, 회향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정법문중 스님들께 확철대오 하시어 광도중생지발원 하실 수 있기를 지극정성 발원 올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만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었다면 인생의 그 어려운 교차로에서 늘 바른 길로 들었겠습니까?

자성부처님이 계셨기에 좋은 부처님들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서 여기까지 무사히 온 것 같아 회향할 때 감사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창피하기도 했습니다만 후련함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혹시나 지금, 참선공부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감히 권해드립니다. 지극히 평범한 저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마시고 어서 참선공부 시작 하셔서 정진해감으로써 세상 말히는 일에 우리 함께, 불자들이 앞장 서 가 보십시오.

두서없는 글 넓은 마음으로 읽어 주시고 수행정진하시는 모든 분들이 확철대오 하시길,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행복하게 공부 하시고 의단독로의 참선수행으로 심신이 두루 건강하시길 부처님 전에 발원합니다. ☺



# 낙상사고



## 봄에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지면 실내보다는 야외에서의 여가활동이 많아지게 된다. 더불어 외상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환자발생도 증가한다. 즐거운 여가 활동은 생활에 활력을 주어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지만 곳곳에 숨은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봄철 외상 중 가장 심각한 사고로는 추락 등 낙상 사고를 들 수 있다. 낙상은 신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면서 그 운동에너지가 신체에 파괴에너지로 작용해 손상을 입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파괴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신체의 손상도 커질 수밖에 없지만, 만약 추락하는 도중에 다른 물체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떨어진다면 지면과 충돌할 때의 파괴에너지도 감소하기 때문에 손상도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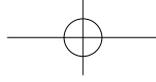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보통 미끄러져 넘어질 때는 추락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것도 추락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서 있을 때는 몸의 중심이 지면 위 1m 정도에 있지만 미끄러져서 넘어진 후에는 몸의 중심이 지면에 있는 상태로 신체 중심의 위치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상의 범위는

미끄러져서 넘어진 후에 입는 사소한 손상에서부터 계단에서 구르거나 높은 건물이나 절벽 등에서 떨어지거나 비행기 등이 추락해서 입는 손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 ▶ 낙상사고 응급처리 요령 ◀

낙상에 의한 손상은 타박상이나 찰과상, 열상 등의 경상에서부터 골절, 두부, 흉부 및 복부 내부 장기 손상 등의 중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만약 산이나 야영지 등에서 가족이나 지인이 낙상했다면 위에서 열거한 손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응급처치로는 제일 먼저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의식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머리를 흔든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 두부에 충격을 받은 경우가 많고, 두부 손상이 있는 환자는 목 부위 척추인 경추 손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약 경추 손상이 있는 환자를 움직일 경우 척수 손상을 일으키게 하거나 더 심하게 해서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의식을 확인할 때는



가볍게 환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자신의 아픈 부위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사지의 한 부분이 심하게 아프면서 변형되었다면 이는 그 부위의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 등으로 부목을 대주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좋다. 사지의 골절은 부목으로 고정해주면 되지만 만약 환자가 목 부위나 등 부위의 척추 골절이 있다면 골절 부위를 나뭇가지 등을 사용하여 고정할 수 없다. 더욱이 척추 골절은 사지골절과 다르게 척수 손상을 유발하여 불구가 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게 하고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119 구급대원이 전문적인 척추 고정 장비를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이다. 환자가 특이한 통증의 호소가 없고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7m 이상의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면 흉부와 복부 내부의 심장, 대혈관, 간, 콩팥 및 비장 등 장기 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증상은 나중에 발현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자의 경우 나중에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이미 치료할 수 있는 아까운 시간이 경과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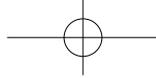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이는 환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먼저 119 구급대의 파송을 부탁해야 한다. 119 구급대를 기

다리는 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척추손상을 염려하여 환자를 움직이게 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으로 환자의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호흡이 있다면 환자가 호흡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호흡이 없다면 2번의 구조 호흡을 한 다음 혈액순환이 되는지의 여부를 살펴서 호흡만 없다면 계속 구조 호흡을 시행하면서 119 구급대를 기다리도록 한다.

만약 호흡과 혈액순환이 모두 없는 상태라면 구조 호흡과 흉부 압박술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치이나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하여도 생명이 위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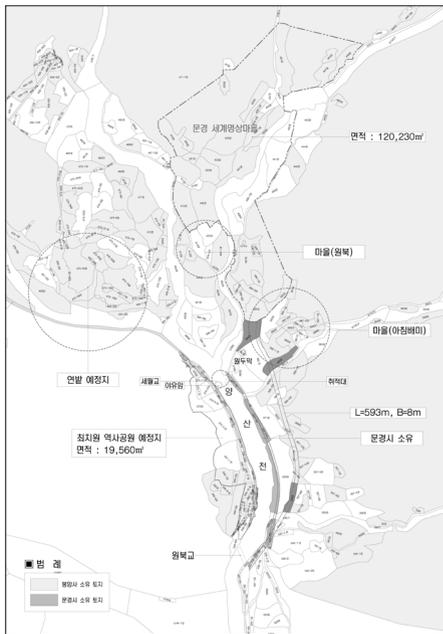


※ 본 난은 '건강IN 매거진' 의 허락을 얻어 참선수행자들에게 유용한 건강상식을 골라 게재합니다.  
 ※ 이번 글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제공으로 '건강IN 매거진' 에 실린 원고임을 밝힙니다.



# 2017년 가을 경 기공식 예정!!

사업단장 박희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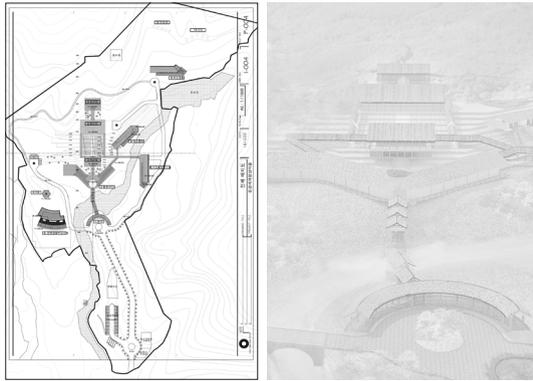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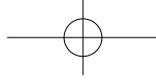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위한 첫 걸음이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동화사에서 봉행된 제2회 간화선대법회를 기해 드디어 내딛어졌습니다. 아직은 땅을 굳게 딛고 서기에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방의 뜻있는 많은 스님, 불자님들이 기꺼이 함께 해주시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리며 간략하나마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사업의 추진 과정을 그때마다 지면을 빌어 보고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난 2016년 10월 27일, 본 법인에서 7억 원, 명상마을 공동추진위원장이신 수불 스님께서 선원장으로 계신 안국선원에서 3억 원을 보시하여 도합 10억 원의 2016년도분 자부담 10억 원을 마련, 입금한 통장 사본과 세계명상마을 기본사업계획서를 문경시 주무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북도청을 거쳐

문광부 주무 부서의 승인이 나서 현재, 문경시청 주무 과에서 2016년도분 국고와 경북도·문경시의 부담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명상마을의 예정 부지의 매입과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 변경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건축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지난 12월말에는 본 명상마을 사업의 건축디자인을 총괄자문하고 있는 국민대 김개천 교수팀이 도시계획 지구단위 변경 승인에 필요한 기본설계와 투시도 등이 완료되어 지구단위 변경사업을 용역 받아 시행 중인 (주)티지엠에서 광범한 용역 보고서와 서류를 갖추어 문경시청 주무 과에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김개천 교수팀은 여름휴가도 반납한 채 기본설계와 투시도 작업을 하였으며, (주)티지엠에서는 교통, 환경, 재해 등이 명상마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필요한 광범한 용역 보고서를 완료하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지난 12월 말에 명상마을 부지 총 120,230m²(36,433평) 중 약 20%에 달하던 사유지의 교환, 매입을 완료



김개천 교수팀이 작성한  
가설계 투시도

문경 조감도

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부지 3,500여 평 소유자 6인과 오랜 협상 끝에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명상마을 총부지 3만6천여 평은 99%로 사업 부지 확보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의 가장 큰 난관이 예정 지구 안에 있던 사유지 문제였습니다. 비록 아직 토지매입비 중 중도금과 잔금 결제가 남았지만, 큰 흐름이 잡혔기에 이제는 사업추진의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부지 확보 외에 가장 큰 과제가 명상마을로의 8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입니다.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까닭에 진입도로 부지 확보와 개설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진입도로 예정 토지는 약 50%가 봉암사 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인 바 이 또한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만, 이 명상마을을 도와주시는 여러 전문가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자문하여 주시어 진입도로를 문경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합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이 성사가 되면, 진입도로도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으나, 여전히 관건은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유지의 매입, 보상과 같은 비용 문제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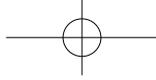
● 2017. 1월 현재, 명상마을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 변경 인가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이것은 4월 중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건축 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이 마무리 되면, 금년 여름 내지 늦어도 가을에는 기공식이 가능할 것이며, 빠르면 내년 봄 개원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조계종 총무원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기본계획 및 토지 사용 승인 절차를 법무사와 용역사 자문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완료되면 봉암사의 교구본사인 직지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재무부로 승인 신청을 할 것이며 이 작업은 오는 3월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협의하여 2016년 동안거 해제 뒤 3월경부터 명상마을 참선 프로그램 개발 및 선(禪)포교사 양성에 방안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금년은 1947년 봉암사 결사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전국선원수좌회와 조계종 종립특별선원 봉암사가 결사 기념 대법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연초에 설악산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오현 대종사께서 본 명상마을 후원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 해주셨습니다. 이렇듯 크고 작은 후원이 연이여지고 있음에 큰 감사 올립니다.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 국제화의 산실이 될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은 사부대중의 후원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십시일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후원회원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명상마을 개원 이후 할인 혜택은 물론 프로그램 참여의 우선권을 드리게 될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6년 총 95건 의료비 지원현황  
총 지원금 1억3천3백여만 원

지난 2016년에는 총 95분의 수좌스님들께 1억 3천3백여만 원(133,922,370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드린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5분 스님 중에는 2회 또는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분이 7분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들이었습니다.

2012년 1월, 본 법인 출범 이후 의료비 지원은 2012년 11건 2천2백여만원에서 2013년 34건, 7천5백여만 원, 2014년 68건 1억8천8백여만 원, 2015년 72건 1억2백여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고의 수좌 스님들께 이렇듯 도움드릴 수 있는 것은 후원불자님들의 큰 관심과 후원 그리고 수좌 스님들의 도반의 병고를 나누고자 기꺼이 납부해주시는 수좌 복지회비 덕분입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다솔회, 무상회, 현기스님 신도회 등등  
수좌복지 후원금 보내와

새생명 살리기 봉사단체인 다솔회에서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10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다솔회에서는 해인사 해인총림선원에서 정진하시던 00스님께서 긴급 수술치료를 받으셨으나 동일병 2회 이상 지원 불가 의료비 지원규정 개정 전이라 본 법인으로써는 지원할 길이 없던 차에 400여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흔쾌히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2016년 11월 16일 연회 100만원 후원금을 보내겠다 한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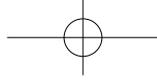
또 연락처 하나 없이 무시로 큰 금액을 후원해주는 오정원님, 청담공동탕전 님, 토지당한의원 김민정 님 등등 큰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제2회 간화선대법회 이후에는 대구 서봉사 신도회인 무상회에서도 수좌복지 후원금으로 100만원을, 지리산 상무주암 현기 큰스님 신도회에서 200만원을, 역시 현기 큰스님의 신도라며 박홍규 님이 500만원을 수좌복지 후원금으로 보내주셨기에 거듭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 2016년 동안거 96개 선원에서  
총 2,063명 수좌 정진

2016년 동안거 해제일이 오는 2월 1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100일간의 정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동안거에는 8대 총림을 비롯 비구선원 56개, 비구니 선원 32개 등 총 96개 선원이 개설, 총 2,063명의 수좌 스님들이 일심정진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중 큰방 대중은 총 1,626명으로 비구 979명, 비구니 528명, 사미 81명, 사미니 38명이었으며 큰방 외 대중은 32명, 외호대중은 4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눈 푸른 스님들의 안거정진이 마지막 순간까지 여일하시길 기원합니다.



III

# 후원신청서

스 님 <input type="checkbox"/>	정 기 <input type="checkbox"/>	수좌 복지회비 납부 <input type="checkbox"/>	수좌 복지후원 <input type="checkbox"/>				
	일 시 <input type="checkbox"/>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input type="checkbox"/>					
불 자 <input type="checkbox"/>	정 기 <input type="checkbox"/>	수좌 복지후원 <input type="checkbox"/>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input type="checkbox"/>				
	일 시 <input type="checkbox"/>						
※ 개인 정보 난은 정기, 일시 후원 모두, 꼭 기재해 주십시오.							
개 인 정 보	스 님	법 명	속 명				
		승적번호	은 사				
		연 락 처	분 류	비구 <input type="checkbox"/>	비구니 <input type="checkbox"/>	사미 <input type="checkbox"/>	사미니 <input type="checkbox"/>
		거 주 지					
	불 자	성 명	법 명	분 류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주 소							
※ 계좌이체 하실 분은 아래 cms신청 난에 기재 하지 마십시오. ※ 주민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하십시오							
c m s 신 청	계좌 정보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번호				
	후원액	월 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 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2만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 3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이체일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input type="checkbox"/>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후원내역	땅 1평	10만원 <input type="checkbox"/>	서까래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땅 10평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둥(개당)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땅 100평	1,000만원 <input type="checkbox"/>	대들보	1,000만원 <input type="checkbox"/>			

상기 기재 사항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cms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 출금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불기 25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후원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동참 내역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신청서는 팩스로 전송해 주시거나 [www.seonsujoa.org](http://www.seonsujoa.org)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보내실 곳 : 팩스 02-923-9967, E-mail : [seonsujoa@daum.net](mailto:seonsujoa@daum.net)
- 보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전화 02- 922-9967로 해주십시오.

	<b>&lt;후원계좌 안내&gt;</b>	
	수좌 복지회비 납부(스님, 사찰 전용)	농협 / 351-0441-2332-63
	수좌 복지 후원	농협 / 355-0015-6340-13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농협 / 355-9967-9967-43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 정성어린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수좌복지 특별후원 사찰

동화사

## 수좌 복지 정기후원 스님, 사찰, 단체

법용사 주지 승혜스님 / 용화사 용화선원 심공스님 / 도성암 대선 스님 / 선영 스님 / 해영 스님 / 선록 스님 / 법진 스님 / 성환 스님 / 벽상 스님 / 일지 스님 / 진성 스님 / 덕업 스님 / 보안 스님 / (재)법보선원 / 속초 신용사 / 구위 법주사 / 서울 원각사 / 대전 복전암 / 위봉사 위봉선원 / 불선사 선재회 / 삼보정사 / 화장사 참선반

## cms 수좌회비 납부 스님

가가스님	각능스님	각주스님	각조스님	각행스님	강설스님	강운스님
거오스님	건봉스님	건우스님	견인스님	경문스님	경선스님	경성스님
경운스님	경중스님	경진스님	경현스님	경환스님	계도스님	계동스님
계영스님	고경스님	고담스님	고법스님	고산스님	고운스님	고은스님
곡필스님	곡산스님	곡승스님	곡암스님	곡마스님	곡산스님	곡성스님
공평스님	관우스님	관진스님	관진스님	광덕스님	광륜스님	광목스님
광일스님	광현스님	광현스님	광혜스님	구거스님	국진스님	근척스님
금홍스님	금류스님	금산스님	금성스님	금우스님	금하스님	금하스님
금산스님	기나스님	기척스님	기철스님	기현스님	길상스님	길장스님
남강스님	남홍스님	남우스님	노불스님	녹연스님	농현스님	농현스님
능과스님	능관스님	능산스님	능운스님	능인스님	능인스님	능인스님
능해스님	능혜스님	능해스님	대경스님	대경스님	다우스님	담연스님
담연스님	담원스님	담월스님	담현스님	당경스님	대덕스님	대륜스님
대선스님	대성스님	대신스님	대연스님	대영스님	대우스님	대우스님
대운스님	대홍스님	대월스님	대화스님	대국스님	덕필스님	덕필스님
덕업스님	덕문스님	덕문스님	덕상스님	덕성스님	덕순스님	덕안스님
덕연스님	덕우스님	덕우스님	덕운스님	덕현스님	덕현스님	덕현스님
덕현스님	덕원스님	덕원스님	덕우스님	덕인스님	덕제스님	덕제스님
덕해스님	덕강스님	덕경스님	덕경스님	도경스님	도과스님	도과스님
도립스님	도명스님	도명스님	도명스님	도명스님	도무스님	도무지스님
도보스님	도봉스님	도봉스님	도석스님	도성스님	도순스님	도순스님
도신스님	도야스님	도안스님	도안스님	도안스님	도안스님	도안스님
도인스님	도연스님	도연스님	도연스님	도영스님	도우스님	도우스님
도원스님	도운스님	도운스님	도운스님	도영스님	도원스님	도원스님
도정스님	도이스님	도일스님	도정스님	도정스님	도정스님	도정스님
도학스님	도해스님	도해스님	도해스님	도행스님	도현스님	도현스님
도현스님	도홍스님	도홍스님	도홍스님	도홍스님	도운스님	도운스님
동각스님	동곡스님	동곡스님	동명스님	동목스님	동목스님	동목스님
동해스님	동암스님	동암스님	동운스님	동우스님	동우스님	동우스님
동원스님	동원스님	동원스님	동유스님	동유스님	동운스님	동운스님
동진스님	동주스님	동주스님	동해스님	동현스님	동현스님	동현스님
동초스님	동홍스님	동홍스님	두강스님	두경스님	두과스님	두과스님
만성스님	만성스님	만성스님	만성스님(이산)	만우스님	만우스님	만우스님
만경스님	만경스님	만경스님	명고스님	명고스님	명고스님	명고스님
명구스님	명달스님	명달스님	명석스님	명석스님	명성스님	명성스님
명철스님	명철스님	명철스님	명연스님	명연스님	명현스님	명현스님
명원스님	명조스님	명주스님	명중스님	명지스님	명진스님	명진스님
명환스님	명환스님	명환스님	묘안스님	묘안스님	묘보스님	묘보스님
묘산스님	묘성스님	묘성스님	묘연스님	묘연스님	묘적스님	묘적스님
묘해스님	묘운스님	묘운스님	무강스님	무강스님	무구스님	무구스님
묘보스님	묘봉스님	묘봉스님	무상스님	무상스님	무우스님	무우스님
무연스님	무영스님	무영스님	무위스님	무이스님	무인스님	무인스님
무일스님	무중스님	무중스님	무진스님	무진스님	무철스님	무철스님
무초스님	무홍스님	무홍스님	문강스님	문강스님	미가스님	미가스님
민석스님	반야스님	반야스님	방두스님	방두스님	백우스님	백우스님
법넬스님	법노스님	법노스님	법중스님	법중스님	법지스님	법지스님
법전스님	법해스님	법해스님	법경스님	법경스님	법관스님	법관스님
법평스님	법기스님	법기스님	법륜스님	법륜스님	법보스님	법보스님
법봉스님	법봉스님	법봉스님	법성스님	법성스님	법성스님	법성스님
법수스님	법수스님	법수스님	법인스님	법인스님	법여스님	법여스님
법연스님	법연스님	법연스님	법운스님	법운스님	법창스님	법창스님
법장스님	법중스님	법중스님	법진스님	법진스님	법천스님	법천스님
법철스님	법해스님	법해스님	법현스님	법현스님	법홍스님	법홍스님
법탁스님	백봉스님	백산스님	백운스님	백인스님	백해스님	백해스님
보경스님	보관스님	보관스님	보광스님	보길스님	보명스님	보명스님
보영스님	보명스님	보목스님	보문스님	보문스님	보문스님	보문스님
보보스님	보상스님	보상스님	보석스님	보석스님	보산스님	보산스님
보성스님	보승스님	보승스님	보우스님	보우스님	보원스님	보원스님
보일스님	보타스님	보타스님	보환스님	보환스님	보화스님	보화스님
보각스님	본목스님	본영스님	본월스님	본진스님	본화스님	본화스님
불일스님	삼밀스님	삼봉스님	삼성스님	삼행스님	상덕스님	상덕스님
상범스님	상범스님	상범스님	상우스님	상우스님	상우스님	상우스님
상록스님	상석스님	상진스님	상혜스님	상현스님	서경스님	서경스님
서운스님	서산스님	서운스님	서월스님	서월스님	서주스님	서주스님
서진스님	서초스님	서초스님	서현스님	서강스님	석교스님	석교스님
석우스님	석우스님	석우스님	석중스님	석중스님	석환스님	석환스님
선각스님	선각스님	선경스님	선경스님	선공스님	선광스님	선광스님
선담스님	선도스님	선영스님	선명스님	선명스님	선록스님	선록스님

선범스님	선운스님	선정스님	선정스님	선정스님	선정스님	선정스님
선행스님						
설산스님	설승스님	설승스님	설승스님	설승스님	설승스님	설승스님
성담스님						
성문스님						
성목스님						
성연스님						
성원스님						
성재스님						
성천스님						
성화스님						
소능스님	소담스님	소담스님	소림스님	소림스님	소영스님	소영스님
송암스님						
수범스님	수범스님	수범스님	수산스님	수산스님	수암스님	수암스님
수원스님	수원스님	수원스님	수정스님	수정스님	수중스님	수중스님
승명스님	승명스님	승명스님	승현스님	승현스님	승현스님	승현스님
승원스님	승원스님	승원스님	승진스님	승진스님	승안스님	승안스님
신성스님	신순스님	신순스님	신운스님	신운스님	신광스님	신광스님
이관스님	이관스님	이관스님	이정스님	이정스님	이현스님	이현스님
여금스님	여금스님	여금스님	여영스님	여영스님	여운스님	여운스님
여일스님	여일스님	여일스님	여진스님	여진스님	여초스님	여초스님
연범스님	연범스님	연범스님	연영스님	연영스님	연운스님	연운스님
연암스님	연암스님	연암스님	연정스님	연정스님	연중스님	연중스님
영암스님	영암스님	영암스님	영운스님	영운스님	영목스님	영목스님
영해스님	영해스님	영해스님	영법스님	영법스님	영복스님	영복스님
웅현스님	웅현스님	웅현스님	우건스님	우담스님	우림스님	우림스님
우암스님	우암스님	우암스님	우전스님	우진스님	우진스님	우진스님
우진스님	우현스님	우현스님	우광스님	우목스님	운법스님	운법스님
운여스님	운운스님	운운스님	운산스님	운산스님	운경스님	운경스님
원공스님	원공스님	원공스님	원광스님	원광스님	원구스님	원구스님
원담스님	원담스님	원담스님	원담스님	원담스님	원대스님	원대스님
원명스님	원명스님	원명스님	원무스님	원무스님	원보스님	원보스님
원암스님	원암스님	원암스님	원영스님	원영스님	원운스님	원운스님
원일스님	원일스님	원일스님	원홍스님	원홍스님	원자스님	원자스님
원전스님	원전스님	원전스님	원철스님	원철스님	원재스님	원재스님
원주스님	원중스님	원중스님	원화스님	원화스님	원혜스님	원혜스님
원혜스님	원혜스님	원혜스님	원홍스님	원홍스님	원필스님	원필스님
월인스님	월인스님	월인스님	유마스님	유성스님	유운스님	유운스님
유정스님	유정스님	유정스님	유정스님	유정스님	유진스님	유진스님
유상스님	유상스님	유상스님	유일스님	유일스님	유광스님	유광스님
유희스님	유희스님	유희스님	의상스님	의상스님	의정스님	의정스님
이화스님	이건스님	이건스님	이반스님	이관스님	인공스님	인공스님
인성스님	인운스님	인운스님	인선스님	인선스님	인환스님	인환스님
일건스님	일경스님	일경스님	일공스님	일공스님	일광스님	일광스님
일구스님	일구스님	일구스님	일기스님	일기스님	일봉스님	일봉스님
일목스님	일목스님	일목스님	일우스님	일우스님	일문스님	일문스님
일범스님	일범스님	일범스님	일석스님	일석스님	일암스님	일암스님
일운스님	일운스님	일운스님	일현스님	일현스님	일조스님	일조스님
일태스님	일태스님	일태스님	일치스님	일치스님	일척스님	일척스님
일해스님	일해스님	일해스님	일홍스님	일홍스님	일향스님	일향스님
임전스님	임정스님	임정스님	자경스님	자경스님	자광스님	자광스님
자명스님	자명스님	자명스님	자성스님	자성스님	자성스님	자성스님
자원스님	자원스님	자원스님	자인스님	자인스님	자인스님	자인스님
자적스님	자중스님	자중스님	자현스님	자현스님	자환스님	자환스님
재우스님	재우스님	재우스님	재우스님	재우스님	재담스님	재담스님
적로스님	적만스님	적만스님	적명스님	적명스님	적운스님	적운스님
정각스님	정각스님	정각스님	정견스님	정견스님	정괴스님	정괴스님
정념스님	정념스님	정념스님	정만스님	정만스님	정명스님	정명스님
정목스님	정목스님	정목스님	정문스님	정문스님	정문스님	정문스님
정법스님	정법스님	정법스님	정선스님	정선스님	정석스님	정석스님
정심스님	정심스님	정심스님	정암스님	정암스님	정인스님	정인스님
정운스님	정운스님	정운스님	정원스님	정원스님	정원스님	정원스님
정인스님	정인스님	정인스님	정진스님	정진스님	정철스님	정철스님
정현스님	정현스님	정현스님	정혜스님	정혜스님	정효스님	정효스님
정홍스님	정홍스님	정홍스님	제법스님	제법스님	제운스님	제운스님
제중스님	제중스님	제중스님	제안스님	제안스님	제우스님	제우스님
중근스님	중근스님	중근스님	중보스님	중보스님	중관스님	중관스님
중성스님	중성스님	중성스님	중립스님	중립스님	중산스님	중산스님
중인스님	중인스님	중인스님	중찰스님	중찰스님	중우스님	중우스님
중호스님	중호스님	중호스님	중환스님	중환스님	중홍스님	중홍스님
중운스님	중운스님	중운스님	중환스님	중환스님	중환스님	중환스님
지건스님	지건스님	지건스님	지견스님	지견스님	지광스님	지광스님
지관스님	지관스님	지관스님	지눌스님	지눌스님	지단스님	지단스님
지본스님	지산스님	지산스님	지산스님	지산스님	지산스님	지산스님
지상스님	지상스님	지상스님	지선스님	지선스님	지설스님	지설스님
지승스님	지승스님	지승스님	지수스님	지수스님	지성스님	지성스님
지인스님	지인스님	지인스님	지암스님	지암스님	지암스님	지암스님
지환스님	지환스님	지환스님	지흥스님	지흥스님	지흥스님	지흥스님
지우스님	지우스님	지우스님	지육스님	지육스님	지운스님	지운스님
지월스님	지월스님	지월스님	지원스님	지원스님	지월스님	지월스님
지의스님	지인스님	지인스님	지인스님	지인스님	지정스님	지정스님
지진스님	지철스님	지철스님	지환스님	지환스님	지해스님	지해스님





# 보이차의 유통기한

글, 사진 : 김동수(예원당 대표)

1960년대 초, 당시 북경의 고궁박물관 차(茶) 창고에는 청나라 때부터 보관 되어온 차가 수 톤이나 쌓여있었습니다.

이 차들은 청나라 때부터 황실에 진상되었던 귀한 것들이었습니다만 미처 다 소비되지 못하고 남아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차 중에 가장 양이 많았던 것이 바로 보이차였습니다. 그만큼 황실에서 보이차를 즐겨마셨다는 반증입니다. 보이차 외에도 육안차, 백호은침, 용정차, 철관음차, 무이암차(대홍포) 등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황제가 마셨던 차의 맛은 어떠하였을까요? 역사는 청나라가 멸망한 때를 1911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들은 아무리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것들이니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물며 황실에 진상될 차이니 그 당시에 최고급 원료로써 제다되었을 것이고 보관도 매우 잘 하였을 것입니다. 100년 된 보이차맛,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차의 맛을 직접 본 감별사들 얘기는 이랬습니다.



“탕색은 남아있지만 이미 차라고 할 만한 맛은 많이 없어진 상태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 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차맛을 내는데 필요한 것은 차잎 속에 남아있는 화학성분의 조화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화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 산화되어 줄어들기 때문에 차의 맛과 향이 조금씩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금 만드는 생차(生茶)는 너무 강해서 마시기가 힘들 정도이니 연하게 우려 드시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기간동안 잘 보관되어 온 보이차는 그 맛과 향이 살아있고 약성 효과도 또한 좋다고 합니다.

반면에 100년 된 보이차는 현존하는 자체만으로 귀한 골동품의 가치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현재는 중국의 운남성 보이현 박물관에 잘 보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차는 중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 역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

此事不在在家出家 亦不在初參後學  
又不在多生熏鍊 忽得開發  
只在當人一念真實的的信字裏

-『懶翁語錄』

이 일은 재가나 출가에 달려 있지도 않고,  
초참과 후학에 달려 있지도 않으며,  
또한 다생의 훈련에 달려 있지도 않다.  
홀연히 마음이 열리는 것은  
단지 당사자의 일념에 있는  
진실한 믿음(信)에 달려 있을 뿐이다.

